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제10차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um 10)」이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됐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포럼에는 약 1천여명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인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가졌다.

14일에 있던 개회식에서는 이의구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필국무총리와 피카시 아카시아회장 그리고 스쿠타스 UIA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4회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MIT공대의 스탠포드 앤더슨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포럼기간중에 WTO에 의한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문제에 대해 스쿠타스 UIA회장 등 국제유력인사들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 신청지원을 위한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고,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워크숍을 통해서도 각국의 교육실정과 인증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는 '기술시대에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건축기술이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두갈래로 나누어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자로는 Nela De Zoysa(스리랑카), Michael McNamara(영국), 김석철(아키반), Jean Francois Blassel(프랑스), Hiroshi Naito(일본), Kenneth Yeang(말레이시아)이 참여했다.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으로는 단독주택부문에 Seiichi Kubo(일본)의 「The House with Orange Flowers」, 다가구주택부문에 Anthony H H Ng(홍콩)의 「Verbena Heights」, 상업용건축물부문에 Bing Kwan(홍콩)의 「City Tower」, 연구소/사회시설부문에 김석철의 「제주영화박물관」, 상업용건축물부문에 Nela de Zoysa(스리랑카)의 「BMW complex」, 보존시설부문에 Richard K F Ho(싱가포르)의 「12 Koon Seng Road」가 각 부문별 선정됐고, 휴양지/레저/호텔부문과 특수건축물부문에는 해당작이 없었다. 제11차 아카시아포럼은 2001년 9월경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종필 국무총리님과 이건축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전국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피카시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님과 스쿠타스 UIA회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을 대한건축사협회 7천여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각 회원국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건축의 공통과제와 현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망하는 중요한 국제학술행사입니다.

특히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제10차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포럼은 그동안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속에서도 건축문화의 전통보전에 힘써온 아시아 국가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감에 있어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를 논하는 역사적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도 불과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지식·정보시대인 동시에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건축분야 또한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가적 역량을 대변하는 자산임을 감안할 때 건축문화 창달의 사명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로서는, 한세기의 전환점을 맞아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는 대륙간 경제블럭화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새로운 경제질서의 흐름들이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상하는 등 세계 건축시장에 큰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건축의 21세기 건축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이러한 흐름들은 각국 건축사들이 더욱 확고한 동반자 관계로서 변혁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어떤 가시적 성과나 결론 도출의 중요함은 물론 아시아 건축사들간 공동인식과 연대강화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회원국간 기술·정보교류 및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건축의 희망찬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포럼준비협회의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국 건축사 여러분의 한국방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32년전 아시아 16개국의 건축사단체들이 한데 모여 결성한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그동안 건축정보와 기술을 서로 교류하면서 아시아 건축문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건축분야에서 아시아의 비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국의 건축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학술행사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21세기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 올해는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건축문화의 뜻있는 이 해에 우리에게 좋은 조연과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학문명의 발전은 지구촌의 건축문화와 이에 따르는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초가나 기와집 같은 독특한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신기술에 의한 전혀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마다 나름의 전통을 계승해온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문화와 전통의 측면과 과학과 기술의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가, 오늘날 우리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다양한 건축문화 속에서 활동해온 아시아의 건축전문가 여러분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란 주제로 새로운 21세기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지역은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대형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건축물 형태와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건축분야에서의 아시아 비전을 조망해 보는 대규모 학술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대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를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학술대회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바 이런 포럼은 더욱 더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서구 과학기술만을 추구하여 아시아의 지역적 고유성과 소중한 전통을 소홀히 인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특성이나 지역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풍습과 귀중한 문화유산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화란 모든 국가가 하나로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화될 때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분야 역시 과학기술에만 의존하여 지역별 특성과 개성을 등한시 한다면 획일화된 건축문화속에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삭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이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천년에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현재와는 또다른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가 시사하듯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움속에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국제행사가 미래의 아시아건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축문화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WTO출범이후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건축가연맹인 UIA총회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국제적 장려기준안」을 채택하는 등 건축설계분야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토론회인 만큼 아시아 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져 아시아 건축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번 포럼을 유치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 회장님, 또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건축인이 새롭게 도약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20회 아카시아이사회, 교육위원회 및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10차 아카시아포럼」행사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8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번 행사 역시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카시아는 아시아지역 16개국의 건축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의 건축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저명한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제 및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이나 연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의 환경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진보가 이루어지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주제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환경 내에서 전통건축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특히 아시아의 건축전문가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세계각지의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의 건축사들의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폭넓은 정보교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건축문화 발전에 아카시아의 역할 기대

세계건축가연맹을 대신해서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이렇게 저명한 건축사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주제의 중요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인 회의의 개최지로써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세계건축가연맹 총회가 열린 것은 북경이 처음이었지만, 북경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졌다는 자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건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축에 있어서 전통과 기술이 항상 공존해 왔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미학적인 발전들은 바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건축물이 다 보존된다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존하고 싶은 건축물들이 입지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예를들면 한국에 있는 궁궐같은 것들은 입지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건축가연맹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보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과 문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건축물 보존 노력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보존은 건축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외 여러 활동을 통해서 건축물과 여러 문화적인 유산 보존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병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공평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자크 루소가 오래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또 그중에서 특히 다른사람보다 더 평등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건축사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이야말로 기술과 전통과의 균형을 염두에 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경에서 열렸던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건축」이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맡고 있는 문제들이 세계 어느지역보다도 아시아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그만큼 더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가 앞으로 건축의 면에 있어서도 가장 급격한 성장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는 앞으로 이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계건축가연맹의 활동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역기구들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아카시아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건축가연맹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빕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20세기 들어서 모던건축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도들은 건축기술의 발달에 의해 지원되었고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레이너밴넘(Reyner Banham)같은 건축 비평가는 새로 발견된 건축적 기술에 의해 지어지는 풀러(Buckminster Fuller)의 돔형태를 새로운 건축의 상징으로 극찬하며 전통과 결부된 어떤 형태의 건축도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풀러의 돔형태가 제시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물론 아직도 체육관 등 특별한 구조를 요하는 곳에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건축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건축은 과학과 기술에 연계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의 시작은 과거, 전통의 밖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건축 역시 전통과의 연계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전통 밖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가정자체가 그릇된 발상으로 모든 과학과 기술은 과거 선배들의 수없는 실수와 시도를 먹고 꽃피우게 되며, 더구나 건축은 과학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기에 이런 논의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역사결정론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견되면 역사는 그 패러다임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서 건축의 주제가 기술과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완벽한 진리일 수 없다. 한쪽 방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찌와 소련이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축이 과거로 회귀되어야 한다거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기술과 과학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에 있어서 기술과 전통 사이의 역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의 건축가중 그림쇼(Grimshaw)나 노만포스터경, 리차드로저스같은 건축가는 하이테크한 건물을 설계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어진 조건과 건축적 맥락을 존중하며 설계에 임한다. 기술과 과학을 내세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건축적 설계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프랭크 게리같은 건축가는 옛날 같으면 도저히 그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건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며 짓는 가장 현대적인 건축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계획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없는 모형을 만들어 가는 전통적인 설계접근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안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다듬은 후 최종 결과물은 다시 모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건물은 최신의 컴퓨터 도면 작성기법과 시공기술에 의해 지어지고 대중들에 의해 이 시대 최고의 건물로 찬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과거에 못하던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자칫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게리의 건축물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오히려 요즘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헤르조그(Herzog)이나 켄 양(Ken Yeang) 혹은 건축가로 유명하진 않지만 기술과 전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역 건축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제시하는 건물들을 주목한다. 환경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과거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사용법을 넓히는 일을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재료들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재료들로 증빙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축적 기술을 통해 과거에 제약이 되었던 많은 것들을 제거하여 과거의 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스러움이 아닐까 한다.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건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 기술과 건축과의 관계라 정의해 본다.